

## 조금 더 미리, 조금 더 오랫동안

나에게 대학 과제 글쓰기란, 주어진 자료를 주의 깊게 여러 번 읽고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쳐 그 과정에서 내가 발견한 새로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읽기는 보고 또 듣는 과정이고 쓰기는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과정이다. 이들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 그래서 글쓰기에 앞서 자료를 더 열심히, 자세하게 읽을수록 나의 글로 펼쳐 보일 수 있는 이야기 재료가 넉넉해진다. 나는 이렇게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한 개 또는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또 좁히기를 반복하며 글의 뼈대를 만들고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유용한 키워드를 찾아내기 위해 자료 읽기를 꼼꼼히 하려면 정성, 집중, 인내가 필요하다. 탄실한 글을 쓰려면 읽기부터 잘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글쓰기’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선 참 무거운 기분이 들곤 한다. 도대체 내가 이해한 바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은 언제나 너무 힘겹다. 그런데도 계속 글쓰기를 연습하며 배우고 싶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글쓰기라는 것이 도전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 자료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내려 하다보면 결국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고 생각으로 깊어지고 구성되어 내가 쓴 이야기가 탄생한다.

아주 작은 새로움이 더해진 것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글을 완성한 시점에 찾아오는 설레고 벅찬 성취감은 정말 뿌듯한 맛이다. 이 때문에 나에게서는 글쓰기를 꾸준히 연습하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혼자서도 글쓰기를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래서 글쓰기 연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내 글을 봐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다면 조금씩

● ● ●  
조 유 빈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대학은 그런 점에서 글쓰기 연습장으로서 최적의 환경이었다. 수강신청을 할 때면 글쓰기 과제가 많은 과목을 일부러 포함시켰고 글쓰기 관련 프로그램을 발견하면 일단 신청하고 보는 습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습관대로 수업과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할 때면 한편 ‘굳이 사서 고생해야 할까’ ‘그냥 다음에 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럴 때는 늘 ‘혼자서는 절대로 꾸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되새기며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글쓰기 연습틀에 넣었다. 그리고 매 학기가 지나고 돌아보면 후회하는 마음보다는 그때 그렇게 하길 잘 했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다. 글쓰기 실력을 기르려면 어찌 되었든 글을 직접 써 봐야 하는 법이라는 말을 붙잡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지속적인 글쓰기 연습을 위해 안전장치를 해 놓는 한편 또 필요한 게 있었다. 바로 글쓰기 연습을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달래는 ‘희망’이 그것이다. 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힘겨울 때면 두 가지 희망으로 스스로를 달랜다. 하나는 ‘시간은 흐를 것이고 잠시 후면 이 글도 완성될 것’이라는 너무 당연한 말 한마디이다. 다른 하나는 ‘이 글 한 편을 완성한 뒷면 나의 글쓰기 실력도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것’이라는 사뭇 가느다란 믿음이다. 너무 당연한 말 한마디와 자기 자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가느다란 믿음 한 줄기가 포기 일보 직전 위기 상황에서 매번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참 신기하다.

실제로 글을 쓰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 다짐을 한다.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자’가 그것이다. 잘 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늘 있지만 그 바람이 과해지면 감당 못할 욕심이 되어 스스로를 얽어매고 억누른다. 대단한 글을 써야겠다고 각오하면 부담과 긴장감 때문에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게 된다. 그보다는 내가 지금 수준에서 이해하고, 발견한,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열심히 쓴다. 정직하게 말이다. 지금의 내가 쓸 수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쓰려 한다. 이 마음가짐은 게으름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현 상태를 정직하게 대면하여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는 것은 건강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하나씩 더 알아가게 되고, 글도 더 잘 쓸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힘들게 하여 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글을 쓴 다음, 나는 반드시 퇴고를 한다. 내가 쓴 글이기 때문에 우선 나부터 다시 읽어보며 이상한 구석을 찾아내는 것이다. 글을 쓸 때는 한 자, 한 자 정성을

답아 쓰지만, 퇴고를 할 때는 쟁쟁해보는 눈을 가지려고 한다. 내가 쓴 글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성한 부분이 있어도 슬쩍 보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그러면서 문장, 문단, 문단 사이의 연결, 글 전체 구조 등을 천천히 살펴본다. 필요하지 않은데 써 놓은 무언가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운다. 이때 좀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 아까워하는 마음까지 함께 지우면 한결 편안하다. ‘내가 나도 모르는 말을 써 놓거나 은근슬쩍 넘어가는 구렁이처럼 미끌미끌하게 써 놓은 부분은 없나’ 거듭 확인한다.

그 다음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내 글을 읽어봐 달라고 부탁한다. 이 시점에서 글쓰기 과정 전체를 통틀어 가장 쑥스럽다. 피드백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언에 따라 글을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나서서 숙제를 더 만들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글쓰기를 가장 많이 배운다. 나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글을 써본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얻을 점이 참 많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나에게 깨우쳐준다.

사실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묻고 그저 듣는 것은 아주 간편하다. 반면에 직접 쓴 글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끄럽다. 그런데 ‘보여주기’도 자꾸 하다보면 익숙해져서 괜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냥 자꾸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비판받고 교정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쓴 글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애쓰고 힘들어서 글쓰기 연습 사이클에 스스로를 넣는 것 말고 평소 생활에서 글쓰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좋은 글을 많이 읽으려고 한다. 펜을 하나 들고 책을 읽으면서 전율이 흐르는 문장에 표시를 하는데, 잊지 못할 정도로 인상적인 경우엔 베껴 써보기도 한다. 나도 느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책 속에서 간결하고 예리하며 심지어 아름다운 문장으로 마주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몽똥그려 어렵풋이 느끼고 생각한 뒤 밀어두었던 어떤 사항들을 얇게 잘라 프레파라트로 만들어서 현미경에 놓고 보여주듯이 소름 돋는 문장으로 표현해주는 책들을 평소에 열심히 감상한다.

적어도 대학을 다니는 동안 글쓰기를 계속 연습해야 하는 나는, 이 도전적이기에 매력적인 글쓰기 훈련에 임하는 다짐을 하나 더 해보려 한다. ‘조금 더 미리, 조금 더 오랫동안 쓰기’이다. 지금까지 글쓰기 과제를 하면서 ‘살짝만 미리 쓸 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오래 다듬을 걸..’ 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다. 사실 글은 정

성을 채워 넣은 시간으로 쓰는 게 아닐까? 본인이 재미를 느끼는 게 우선이겠지만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정성을 채운 시간 투자' 인 것 같다. 미리 쓸수록 더 뜯어볼 수 있고 오랫동안 거듭 뜯어볼수록 더 많이 다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앞으로는 '미리, 오랫동안 쓰기' 라는 새로운 다짐을 손에 들고 다시 한 번 일어나 걸어가야겠다.